

광산구 '체인지 메이커 지도사', 마을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도사 과정 통해 양성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꿈에 뿐' 지도사 과정을 통해 양성한 '체인지 메이커'들이 동네문제 해결사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마을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유쾌한 참견~ 마을 문제 해결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도산동 △월곡

1동 △운남동 △첨단2동 △신가동 등 광산구 5개 동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광산구 '꿈에 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한 '체인지 메이커 지도사'가 각 동 평생학습센터에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체인지 메이커'는 주민 삶이 있는 현장, 지역을 바꾸는 동네 혁신가를 뜻한다.

이들은 앞으로 동 평생학습센터의 평생학습매니저, 마을 활동가, 주민 등과 마을의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 12일 운남동 평생학습센터에서 가장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한 가운데, 9월까지 마을별 문제를 풀 수 있는 공통 프로그램 개발 및 의제 실행방안 등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광산구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지역을 확대 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체인지 메이커 지도사'와 주민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실천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기만 기자

남구, 부모교육 특별강연

광주 남구 청소년도서관에서는 자녀 성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은 학부모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특별강연 자리를 마련한다.

봉선동 청소년도서관에서 오는 26일 '성(性)공하는 아이로 키우기'라는 주제로 부모교육 특별강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성 의식에 대한 이해를 돋고, 자연스러운 소통 과정을 거쳐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이다.

(사)푸른아우성 소속 성교육 전문가인 우선영 강사는 이날 관내 학부모들과 함께 2시간 가량 폭넓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른 신체 및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 범람하고 있는 음란물의 실태와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계획이다.

부모교육 특별강연에 함께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오는 23일까지 남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문화 프로그램 신청 코너에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및 남구 청소년도서관(062-607-2541)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정희태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치러진 올해 첫 무등산 인문 축제 '인문 For:rest'가 기존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품격 있는 다양한 인문 콘텐츠를 선보이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구,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추가 선정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10종을 추가 선정하고 공급업체 10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구는 최근 담례품 공개모집을 통해 ▲복합유산균세트·선물용 생과자세트(바이오씨앗협동조합) ▲통닭세트 쿠푼(1969양동통닭) ▲무농약 블루베리·블루베리잼·블루베리잼 만들기체험(천사농원) ▲한우

선물세트(빛고을한들축산) ▲수제돈까스 5종세트(젓가락스테이크) ▲삼겹살 모듬세트(태금축산) ▲암소한우우족탕(맛단) ▲반려동물용 품세트(펫마켓) ▲낫또환·국산콩낫또세트(담다푸드) ▲잡곡·누룽지세트(공민)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표상품으로 선정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 1월 기부금 10만 원 기준 3만 원 상당의 담례품 6종(광주통합RPC씰세트, 미왕파이, 참기름세트, 들기름세트, 양념돼지갈비, 물마루 혼합음료)을 선정했다.

/이가영 기자

북구, 공원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운영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공원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들이 문화공연,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공원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현황 전화 확인, 신청서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이용 허가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북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공원시설 예약현황을 조회하고 이용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지난달 말 구축·완료했다.

예약 대상은 ▲본촌근린공원 ▲문화근린공원 ▲신용빛고을근린공원 ▲일곡제2근린공원 ▲영상강대상근린공원 ▲용흥어린이공원 등

예약시스템은 북구청 홈페이지 (<https://bukgu.gwangju.kr/>) 예약신청 서비스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반응형 웹 디자인이 적용돼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북구는 이번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공원시설 예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원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관내 모든 공원의 위치, 면적, 시설 등 주요 정보와 공원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 일정을 함께 제공해 주민들의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시스템 이용상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